

배터리업계, ‘기술·인재’ 자신감… 전기차 합종연횡 이끈다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 본격 추진
경제적 부담 커… 업종간 협업 전망
“공장 수율 개선 등 동반성장 기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토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재를 직접 확보해 판매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성능 향상 및 차세대 배터리 선형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에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구성했다. 배터리 시스템, 셀 설계, 배터리 안전 신뢰성 및 성능 개발, 차세대 배터리 등 선형 개발을 포함하는 기능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 중이다.

토요타도 배터리 개발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토요타는 일본의 정유업체 이데미츠코산과 협업해 2028년까지 전

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토요타는 지난 10월 잘 깨지지 않고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재료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배터리 자체 개발에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의 배터리 기술 개발이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자사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업계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완성차업체에서 배터리 생산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며 “결국에는 배터리업계와 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공장 수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배터리업계는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만9000여 건의 특허와 연간 200GWh 규모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원가 경쟁

력 강화에도 매진한다. 원재료는 현지화를 추진하고 원재료 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SK온은 글로벌 화학기업 BASF와 협업해 원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포함한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업계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 배터리 관련 학과를 설립해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한다.

SK온은 산과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대(KAIST), 한양대, 성균관대 등과 배터리 계약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터리업계에서는 공장 운영 경험이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공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의 수율을 잡고 빠른 기동 및 안정적 기동에 필요한 노하우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2023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삼성 “행복한 사회 구현 함께”

조한혜정·목인희 교수 등 8인 영예
11회 걸쳐 88명에 20억 상금 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삼성 행복대상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긍정 에너지를 나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일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2023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삼성행복대상은 사회적으로 여성 역할을 증진하고,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시대에 맞는 가족 문화를 만들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찾아 알리고 격려하며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3년 ‘비추미 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을 통합 계승했다. 11회에 걸쳐 88명에 20억원 가량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여성선도상 조한혜정(75)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여성장조상 목인희(60)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가족화목상 박영주(54) 세종예술고 음악 교사, ▲청소년상 김선애(15, 정원여중 3), 최별(17, 인천비즈니스고 3), 육효정(18, 신명고 3), 리안티안눈(20, 경희대 1), 백혜경(21, 배재대 3) 학생 등 총 8명이 수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심사위원 등 관계자는 물론 역대수상자와 수상자 가족들을 초청했다. 서정돈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인사말과 노정혜 심사위원장 심사보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축하 등으로 진행했다.

서정돈 이사장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적인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자신보다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신 분들이다”라며 수상자를 축하했다.

여성선도상 수상자인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상호 돌봄의 실천을 통해 경쟁과 적대,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돌봄은 노동이자 윤리관이며, 감정이자 사유의 원리이며, 남녀 모두에게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이제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상식 이후 리움미술관에서 개최중인 전시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관람 행사도 마련했다.

/김재윤 기자 juk@

포스코그룹-르노그룹, 친환경 미래소재 기술개발 맞손

테크데이 통해 협력방안 논의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완성차업체 르노그룹과 친환경 미래소재 핵심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노 R&D(연구개발)센터에서 ‘포스코그룹 테크데이’를 열고 친환경 미래소재 핵심 기술과 주력 제품을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르노그룹과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기존 철강 부문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르노 테크데이는 2011년 이후 이번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왼쪽), 세드릭 콩베모렐 르노 기술총괄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노 R&D센터에서 테크데이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두 번째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르노 R&D센터에 자동차 차체 및 새시용 강판,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전기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과 리튬, 니켈, 양·음극

재 등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사업 관련 기술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르노그룹과 철강, 이차전지소재, 수소차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 탄소저감 철강제품인 ‘그리닛스틸’과 차세대 전기차용 경량 플랫폼, 멀티머티리얼 등에 대해 소개하고, 기가스틸 공동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르노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전(全) 분야로 확대해 탄소중립과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대한항공이 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책임질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 객실승무원 지원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객사업 회복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및 영어구술 시험 ▲3차 면접 ▲건강검진 및 체력·수영시험 순이다.

/양성운 기자

신들러엘리베이터, 전력절감 솔루션 각광

최대 50% 전력 소비 절감

유럽 승강기 브랜드 신들러엘리베이터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신들러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군관리 및 행선층 예약 시스템, 신들러 포트(Schindler PORT)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최대 50%의 전력 소비를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신들러엘리베이터는 친환경 벨트시스템, 군관리 시스템, 전력회생형 구동기를 비롯한 에너지 효율 A등급의 장비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공했다.

특히 신들러엘리베이터의 군관리 및 행선층 예약 시스템, 신들러 포트의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업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군관리 시스템은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설치된 건물에서 동일층으로 가는 승객들을 동일한 카로 안내해 엘리베이터 작동 및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슈케어·슈케이스’ 부스 운영

컴플렉스콘 2023
스타일러 신발관리 솔루션 소개

LG전자가 차세대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슈케어·슈케이스’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스니커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일 LG전자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2023’에서 슈케어와 슈케이스를 진열한 전시 부스를 꾸렸다. 올해 컴플렉스콘 참가자들은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신발을 최적의 습도로 보관하고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는 슈케어·슈케이스의 차별화된 가치와 편리함을 체험했다.

스타일러 슈케어·슈케이스는 IFA 2022에서 처음 공개된 후 명품 운동화나 한정판 신발 등을 더욱 돋보이게 보



LG컴플렉스콘 LG전자 부스

/LG전자

관하고 즐기는 동시에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슈케어는 ‘LG 스타일러’ 특허 기술이 탑재돼 신발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